

林相範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 운동 서술 분석

2007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沈 恩 廷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 운동 서술에 관한 분석

林相範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2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沈 恩 廷

認 准 書

沈恩廷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5·4운동의 연구사 정리	5
1. 중국, 일본, 한국의 연구동향	5
2. 5·4운동의 논쟁점	11
III. 세계사 교과서 5·4운동 서술 분석	18
1. 1차~7차 교육과정기 세계사 교과서 5·4운동 분석	18
2. 5·4운동의 논쟁점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31
IV. 결 론	40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제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5·4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각계 각층이 결집한 민족적 대중 운동으로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여 성공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민중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여러 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서술경향이 전에 나온 교과서 내용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전에 나온 교과서보다 서술이 간략화되어 있다. 특히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서술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개정된 7차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료’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서술의 간략화로 인해 기초적인 사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교과서 집필진의 구성과 연관이 있다.

‘5·4운동’에 대한 교육목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5·4운동이 속해 있는 중단원에 대한 목표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대사 부분은 주제별 학습으로 인해 서양사와 같이 주제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의 서술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집필진의 국한성(局限性)과도 연관있다. 1차~7차까지 교과서 집필자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역사학자 1인에서 4인이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차 교육과정부터는 집필진에 현직교사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집필진

이 2인-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진의 전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5·4운동’과 관련하여 현대사를 전공한 집필진은 없다. 집필진의 구성으로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 현직 교사의 참여로 집필하는 것이 현재체제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사 연구동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한다. 또한 집필진의 확충, 자문·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8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과서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사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서 론

최근 우리 나라 세계사 교육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사 과목의 위상에서 비롯된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은 심화 학습을 위한 9개의 선택과목 중 한 개의 과목으로 진락하였다.¹⁾ 그 결과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의 내용이 전부이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수업시수 때문에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들도 현대사 부분은 다 배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현장 교육의 현실이다. 하지만 현대사교육은 세계사 교육 중에서도 현재의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더욱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위치와 당면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 중에서도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5·4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각계 각층이 결집한 민족적 대중 운동으로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여 성공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민중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³⁾ 하지만 세계사 교과서에서

1) [부록1] -2006년 3월 서울시 교육청의 사회탐구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과 목 명	사 회 · 문 화	한 국 지 리	윤 리	근 현 대 사	정 치	경 제	국 사	법 과 사 회	세 계 사
선 택 자 수	198,216	178,602	176,836	126,579	80,908	80,469	76,954	57,473	32,968

2)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p.283.

3) 강명희, 「5·4 運動」, 『강좌중국사』 VI, 1989, p.233.

의 5·4운동에 대한 서술은 일곱차례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서술경향이 전에 나온 교과서 내용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전에 나온 교과서보다 간략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들 중 세계사 논문을 분석한 국사교과서 분석에 비해 그 편수가 적을 뿐 아니라 서양유럽사에 치중해 있다.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상의 5·4운동을 분석한 논문 분석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필자는 II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알아 볼 것이다. 연구 성과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교과서상의 5·4운동과 연구 동향에서의 5·4운동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하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의 변천내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5·4운동의 논쟁점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학계의 논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5·4운동의 서술의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제1차 교육과정(1954~1963)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1997~)까지의 세계사 교과서 중 본고는 아래의 [표 1] 과 같이 13종을 대상⁴⁾으로 하였다.

4) 해방이후 세계사 교과서는 2차 교육과정시기 까지 검정도서 발행되다가 1977년 8월 검인정령이 폐지되고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세계사 교과서도 이 때부터 1종도서로 분류되어 1979년부터는 문교부가 발행한 한 종류의 교과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1985년부터는 다시 2종도서로 발행되었다. 6차와 7차교육과정 시기에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어 합격 중수의 제한이 없어졌다. 이 중에서 필자는 1차 세계사 교과서는 3종, 2차 세계사 교과서는 4종, 개정 전 3차 세계사 교과서는 4종, 5차 세계사 교과서는 1종, 6차 세계사 교과서는 5종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구한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려다 보니 교과서 서술 분석의 분량이 많아지고, 또한 앞의 교과서와 저자가 같은 교과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 1] 과 같이 선택하였다. 단, 6차 세계사 교과서는 10종 중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3개의 교과서를 채택하였다.(진원숙, 「제5·6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0,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이하에서 I ~Ⅷ은 각각 교육과정의 시기를 말함)

교육과정	총수	교과서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I (1954~1963)	7	1	조좌호	일조각	1956
II (1964~1974)	10	2	고병익 외 1인	향학사	1970
III (1974~1981)	11	3	최문형	교학사	1975
	1	4	민석홍 외 3인	한국 교육 개발원	1979
IV (1981~1987)	5	5	민석홍 외 2인	교학사	1984
		6	신채식 외 1인	보진재	1984
V (1988~1996)	6	7	지동식 외 2인	금성출판사	1990
VI (1996~2001)	10	8	민석홍 외 1인	교학사	1996
		9	오금성 외 1인	금성출판사	1996

p.3.) 그리고 7차 세계사 교과서는 5개 출판사가 검정신청을 하였으나, 3종(지학사, 금성출판사, 교학사)이 최종 합격하였다. 7차 교과서의 총수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적은 이유는, 『한국근·현대사』와 경쟁하게 되자, 기본에 세계사 교과서를 제작해오던 저작자와 출판사가 크게 위축되어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가 6차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7차에서 검정심사가 엄격해져서 세계사 교과서의 합격률(60%)도 다른 2종도서 심화선택과목의 합격률(85%)보다 낮았던 점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金裕利, 「『세계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분석」, 『역사교육』 91집, 2004, p.112.) 그래서 7차 세계사 교과서는 3종 모두를 선택하였다.

		10	허승일 외 2인	지학사	1996
VII (2002~	3	11	김은숙 외 4인	교학사	2003
		12	오창훈 외 3인	지학사	2003
		13	오금성 외 4인	금성출판사	2003

Ⅱ. 5·4운동의 연구사 정리

1. 5·4운동의 연구 동향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일어난 애국적 학생운동으로서의 5·4운동은 결코 큰 규모로 시작된 운동은 아니었지만,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⁵⁾ 이러한 5·4운동의 범위문제, 주도세력, 성격에 대해 여러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계의 논란이 되어왔다.

본고에서는 5·4운동에 관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지역별로 중국 대륙, 일본, 구미, 한국으로 나눠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분을 짓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륙에서는 5·4운동이 자신의 역사적 사건인 반면에, 일본은 중국의 침략을 은폐하기 위한 측면과 일본의 전후 변혁문제 등을 5·4운동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⁶⁾ 구미의 연구사 정리는 제3자의 시각에서 보고자한 점이다. 한국에서 5·4운동 연구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먼저, 중국 대륙학계의 5·4운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5·4운동의 혁명 성격과 운동의 지도세력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5·4운동의 혁명성격과 관련해서는 新民主主義革命說⁷⁾, 反日民族運動說⁸⁾, 第二次

5) 중국현대사의 기점 문제는 신해혁명과 5·4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이 없지 않으나, '民國'이라는 새로운 정치·사회·문화체제의 틀을 마련한 것이 신해혁명이라면, 5·4운동을 거치면서 그 틀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하여 현대사의 출발점을 5·4운동에서 찾거나(閔斗基, 『강좌중국사』 VI, 1989, p.114.)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에 의한 반제·반봉건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시발점으로 5·4운동의 획기성을 주장되었다. 후자는 모택동의 주장으로 중국학계의 입장이다. 위의 논문, p.189.

6) 曹 焘,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충신대논총』 15, 1996, p.169.

7) 이 說은 중공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며, 일본에서는 狹間直樹, 「五四運動研究序說」,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共同研究報告가 있다. 또 이 설의 주장자들은 五·四運動의 지도권과

民國革命說⁹⁾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동의 지도권과 관련해서는 無產階級指導說, 아나키스트지도설¹⁰⁾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혁명성격과 관련해서는 1940년대 毛澤東이 발표한 「신민주주의론」이 5·4운동을 신·구민주주의의 분계선으로 보는 주된 설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구민주주의는 5·4운동 이전 80년간의 특성이고, 신민주주의는 5·4운동 이후 30년간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모택동의 5·4운동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華崗은 『五四運動史』에서 5·4운동과 신문화운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초보적 공산주의 지식인이 5·4운동을 지도했다고 언급하였다.¹¹⁾ 1960년 초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반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朱務善이다. 그는 5·4운동 당시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기 이전으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지도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¹²⁾ 하지만 중국학계에서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이 지배적인 주장이었다.

1978년 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이른바 4인방이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고 ‘4대 현대화’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등소평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학계에서도 역사 연구에 ‘實事求是’의 과학적 입장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5·4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도 제 2의 절정을 맞이하였다.¹³⁾ 이 때 출판된 자료·연구서·논문집은 60여종이나 되었고 많은 논문 및 자료 등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운

관련하여 無產階級指導說을 대체로 주장하고 있다. 曹 焘, 「중공학계의 5·4운동사 연구에 대한 소고」, 『수선사학회』 4輯, 1987, p.87.

8) 五·四運動의 성격을 산동주권수호를 위한 반일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일본학계의 五·四運動論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曹 焘, 위의 논문, p.88.

9) 閔斗基, 『中國現代史時代區分論』,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20.

10) 曹 焘, 위의 논문, p.87.

11) 강명희, 「5·4 運動」, 『강좌중국사』 VI, 1989, p.190.

12) 曹 焘, 위의 논문, p.101.

13) 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第108輯, (1979~1984), p.310.

동의 자발성에 대해 지적을 했고 반봉건의 철저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했고, 5·4운동 지도권과 관련하여 무산계급 지도의 절대적 긍정에서 신문화운동기의 자산계급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陳獨秀·胡適과 같은 5·4운동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¹⁴⁾

한편, 5·4운동에 대한 일본의 최초 연구는 중국인의 배일감정을 제3자에게 돌리려고 하였다.¹⁵⁾ 1950년대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자신들의 근대화 실패 입장에서 5·4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아가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먼저 중국 문화대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5·4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5·4운동에 관한 정리된 연구인 丸山松行의 『五·四運動』이 나오게 되었다.¹⁶⁾

하지만 학생 운동이 가라앉은 이후에는 비교적 정치와는 거리를 둔 객관적·실증적인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¹⁷⁾ 그 가운데 하나는 京都의 狹間直樹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으로 모택동의 5·4운동론을 견지·발전시키기 위해 상해의 노동자 파업(투쟁)과정에서 ‘새로운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밝히려 했다.¹⁸⁾ 다른 하나는 동경의 野澤豊과 五·四運動研究會의 멤버들의 연구였는데 5·4운동을 1915년 이후의 신문화운동, 관세개정요구, 중·일군사협정 반대운동, 러시아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보았고 5·4운동의 기본성격을 ‘일본제국주의와 친일파 안휘과정부에 반대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하였다.¹⁹⁾ 그 결과 1986년에는 中央大學 人文科學研究所編의 『五·四運動史像 再檢討』가 발간되었다.²⁰⁾

14) 曹 焘, 위의 논문, p.118.

15) 曹 焘,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충신대논총』 15, 1996, p164.

16) 丸山松行 著, 김정화 譯, 『5·4운동의 사상사』, 일월서각, 1983.

17) 曹 焘, 위의 논문, p.154.

18) 狹間直樹 著, 양민호 譯, 『5·4운동 연구서설』, 한울, 1985, p.17.

19) 曹 焘,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충신대논총』 15, 1996, pp.181~196.

西洋의 5·4운동에 관한 연구는 周策縱이 시작하였다. 그는 5·4운동을 지식층의 주도하에 근대적 사상변혁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문화)혁명으로 보았고,²¹⁾ 또한 5·4운동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여겼다. 다만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전환점으로 보는 입장에는 부정적이었다. 이후 Jerome. T. Chen은 주책종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5·4운동의 지도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지식인에 의해 지도된 것이 아닌 모든 계급의 활동을 포함하는 애국저항운동으로 보았고 신문화 사상운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민중운동으로 보았다. 또한 신문화운동과 동일시하지 않았다.²²⁾

국내의 5·4운동에 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다. 그것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 미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서도 1969년 閔斗基 교수는 「5·4운동의 역사적 성격」(『동양사학 연구』 4, 1969)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이것은 5·4운동을 역사 연구의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통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閔은 논문에서 종래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3·1운동의 5·4운동에대한 영향을 밝혔으며, 국민당의 성격 변화에 자극을 주고 새 활력소를 불어넣어 마침내 北伐을 추진하게 했다고 주장하였다.²³⁾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 운동이 본격화 되자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4운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나 그 역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정부의 사상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 대부분이 혁명과 변혁의 문제를 정밀히 다루기 힘들었다. 주책종의 『오사운동』을 번역한 책이 금서목록에 오르고 운동권의 중요한 도서목록의 하나였던 사

20) 曹 焘, 위의 논문, p.203.

21) 周策縱, 『5·4운동』, 광민사, 1980. p.14.

22) Jerome. T. Chen 著, 金裕哲 譯, 『5·4운동론』, 청람, 1983, p.83~84.

23) 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第39輯, 1967, p.130.

실은 이 시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²⁴⁾ 따라서 이 때까지는 5·4운동을 총체적, 전면적으로 연구한 수준이 아니었다. 연구 기반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운 개인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정세와 맞물려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5·4운동을 평가하려고 하였다.²⁵⁾

1990년대 중국 근·현대사연구는 저서와 논문의 편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2년 한중국교 수립으로 對中國 관계가 진전 되면서 5·4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자료의 확충, 정보의 풍부로 연구의 폭이 넓어진 것이었다.²⁶⁾ 그 결과 이 시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무정부주의와 관련한 연구들²⁷⁾, 5·4운동기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연구들²⁸⁾도 많이 진행되었다.

5·4운동 80주년, 신중국 탄생 5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중국 근·현대 연구가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갖추게 되자 중국현대사 연구회 주최로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²⁹⁾ 또한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현대사 연구회에서 ‘중국현대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기획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

24) 河世鳳, 「일본학계의 중국 근·현대 역사상과 그 변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5-중국사 근·현대』, 신서원, 1996, p.357.

25) 裴京漢, 「陳獨秀의 初期思想에 대하여」, 『釜山女大論文集』 14, 1983; 민두기, 「채원배 (1868~1940)사상의 구조적 이해」, 『高柄翊先生環甲紀念論叢』, 1984.

26) 신승하·임상범·김태승 共著, 『20세기 중국사』, 1998.

27) 김동원, 「5·4운동기 무정부주의 사상의 一研究」, 『원광대 대학원 논문집』 10, 1992.; 박제균, 「무정부주의사상의 중국으로의 전파」, 『경북사학』 16, 1993; 「오사기 무정부주의자의 이상주의운동: 李石曾의 근검공학운동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50, 1995; 「『工學』 잡지와 오사기 무정부주의 사조」, 『중국현대사연구』 1, 1995; 김정화, 「5·4운동시기의 工讀思想」, 『阜村論叢』, 1995; 김정화, 「채원배의 이상주의 실천-유법근검공학운동의 교육구국적 측면」, 『충북사학』 10, 1998.

28) 김정화, 「5·4운동시기 부녀해방사상」, 『五松李公範教授停年退任東洋史論叢』 지식산업사, 1993; 조경희, 「5·4' 신문화운동과 여성의 발견」, 『중국어문연구회』 12, 1997; 이은영, 「5·4운동기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일고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윤혜영, 「5·4운동과 '신여성」, 『중국현대사연구』 제7집, 1999.

29) 『중국현대사연구특집』은 5·4운동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기에서는 한, 중, 일, 미 등의 국가에서 중국 현대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중국현대사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³⁰⁾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국현대사 연구자들이 ‘현대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연구해야만 세계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에 대한 서술에도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8차 교육과정 시기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5·4운동에 대한 서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5·4운동 자체의 구체적인 연구는 이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었다. 그것은 다만 최근 연구의 관심이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노력, 여러 지식인의 사상적인 추구, 제도적 실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이상과 같은 국내 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국, 구미, 일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는 연구가 있다. 그것은 우선, 5·4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음, 신문화운동에 관한 연구도 5·4운동과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졌지만 독자적인 연구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5·4운동시기의 여성문제를 다룬 여성해방론이나 여성운동에 관해서는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외의 연구 성과를 주로 소개하였고, 최근에 와서 주로 신지식인의 여성해방사상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³²⁾ 또한 필자가 생각하기에 5·4운동시기 학생의 역할

30) 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第167輯, 2000, p.308.

31)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第167輯, (2006)을 살펴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국가 권력과 엘리트의 의도를 중국의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읽고 대응해 나가는가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林相範, 「근대중국에서의 범죄학 성립과 범죄(형법, 범죄학의 도입과 베이징 주민의 대응)」, 『中國近現代史研究』 第31輯, 2006, pp.161~162.

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편적인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5·4운동시기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로 '5·4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5·4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인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운동 조직과 활동, 그리고 5·4운동 이전 처음 시위의 형태인 1918년 『中日共同防敵軍事協定』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겠다.

2. 5·4운동의 논쟁점

한편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 순서에 따라서 5·4운동의 논쟁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5·4운동의 범위 문제, 두 번째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관련성 문제, 세 번째 5·4운동의 주도세력에 관한 문제, 네 번째 5·4운동의 성격문제, 다섯 번째 인물 연구 문제, 여섯 번째 3·1운동과의 관련성 문제, 일곱 번째 사회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세계 각국의 논쟁점에 따라 기존의 연구가 어떤지를 재 정리 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점이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후술하겠다.

첫 번째, 5·4운동의 범위는 협의의 5·4운동과 광의의 5·4운동으로 나뉜다. 협의의 5·4운동은 1919년 5월 4일부터 6월 28일 까지의 파리평화조약조인거부에 이른 2개월간의 운동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5·4운동은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³²⁾ 1915년 9월의 『青年雜誌』의 창간, 즉 신문화 운동의 개시부터 1921년 중국공산당의 결성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 견해, 1917

32) 이석영, 「오사전반기 학생운동의 성격」,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p.2.

33) 조 훈, 「5·4운동의 성격에 대하여(운동주체와 양대를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15, 1978, p.81.

년 채원배총장이 북경대학을 개혁하여 신문화운동의 근거지를 형성한 때부터 1921년까지를 일컫는 견해, 1915년부터 1923년의 ‘과학과 人生觀論爭’이 끝날 때까지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³⁴⁾ 이외에도 국내의 견해로는 민두기 교수의 제2차 민국혁명설이 있다. 민두기 교수는 1901년에서 1912년의 혁명을 민국혁명의 제1단계, 1919년 5월에서 1924년 1월까지의 5·4운동을 민국혁명의 제2단계로 분류함으로써 두 혁명적 단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다진 길을 따라 국민혁명이 전개된다고 보았다.³⁵⁾

우선 5·4운동의 범위를 1915년 9월의 『靑年雜誌』의 창간, 즉 신문화 운동의 개시부터 1921년 중국공산당의 결성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학자로는 孫思白, 李龍牧이 있고, 일본학자로는 笠原十九司, 古廐忠夫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 훈, 강명희가 주장하고 있다.³⁶⁾ 다음 1917년 채원배총장이 북경대학을 개혁하여 신문화운동의 근거지를 형성한 때부터 1921년까지를 일컫는 견해를 주장한 사람은 호적, 주책중 등이 있다.³⁷⁾ 마지막으로 1915년부터 1923년의 과학과 인생관논쟁이 끝난 때까지로 보는 견해를 주장한 사람은 何幹之 등이 있다. 그는 지식인계층의 반봉건 문화 통일전선을 5·4운동의 핵으로 간주하였다.³⁸⁾

두 번째, 5·4운동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신문화운동을 포함한 5·4운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문화운동운동과 5·4운동이 성격이나 목표가 상이한 별개의 운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입장이 있다.³⁹⁾

주책중은 신문화운동을 포함한 5·4운동으로 보았다.⁴⁰⁾ 華崗의 『五四運動史

34) 조 훈, 「오사운동기 운동주체와 그 형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pp.101~102.

35) 민두기, 「民國革命論」, 강좌중국사 VI, 1989, p.114.

36) 조 훈, 위의 논문, p.2.

37) 조 훈, 위의 논문, p.2.

38) 조 훈, 「오사 운동론」, 『海士論文集』 20, 1984, p.166.

39) 강명희, 위의 논문, p.190.

40) 주책중, 『5·4운동』, 광민사, 1980. p.12.

(1954)』는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적극적인 관계를 인정한 5·4신문화운동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⁴¹⁾ 華崗을 발전시킨 책이 丁守和·殷叙彝, 『五四新文化運動』이다.⁴²⁾ 국내 연구자들 중에 민두기는 5·4운동 이전의 신문화운동을 5·4운동의 준비시기로 보고 있고⁴³⁾, 조 훈은 신문화 운동은 5·4운동을 지적배경으로 보고 있다.⁴⁴⁾ 강명희는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문화적 개혁을 통해서건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건, ‘구국(救國)’ 내지 ‘신중국의 건설’이었다는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두 운동이 결합함으로써 이후 역사발전의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하는 역사적 동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⁴⁵⁾

반면에 Jerome. T. Chen은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었지만, 운동의 성격이나 논리가 상이한 별개의 운동이라고 보고, 광의의 5·4운동의 개념을 부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발전시킨 사람은 齋藤道彦이다. 그는 5·4운동이 산동주권회수운동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1919년 5월 4일의 학생운동과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거행된 대중운동으로 한정하였다. 즉 신문화운동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보고 있다.⁴⁶⁾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 간의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문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가 5·4애국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다른 한편, 5·4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각성케 함으로써 신문화운동이 확대·발전되는 대중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⁴⁷⁾

41) 조 훈, 「오사 운동론」, 『海士論文集』 20, 1984, p.164.

42) 강명희, 위의 논문, p.190.

43) 閔斗基, 「5·4운동의 역사적 성격」, 『동양사학연구』 4, 1969, p.70.

44) 조 훈, 위의 논문, 165.

45) 강명희, 위의 논문, p.191.

46) 曹 焘,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총신대논총』 15, 1996, p.204.

47) 강명희, 위의 논문, p.190~191.

세 번째로, 5·4운동의 지도세력과 관련해서 그동안 학계의 주류는 모택동의 주장인 「신민주주의론」에서 5·4운동의 지도권을 “노동자계급·학생군중·신홍민족자산계급으로 보았고 5·4운동 초기에 있어 공산주의적 지식인·소자산계급 지식인 및 자산계급 지식인 세 부분의 통일전선적 혁명운동이었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5·4운동이 6·3운동으로 발전하였을 때에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광대한 무산계급·소자산계급 및 자산계급이 참가하여 전국범위의 혁명운동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운동의 선두에 출현한 것은 수십만의 학생이었다”라고 보았다.⁴⁸⁾ 狹間直樹는 『五·四運動研究序說』에서 모택동의 5·4운동론을 견지·발전시켜 좀더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 반면에 5·4운동의 지도권에 관하여 지식인의 역할을 밝히고, 아나키스트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는 丸山松行이 있다. 그는 청년들이 『신청년』의 윤리혁명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중국혁명에 몸 바치고자 아나키즘에 접근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⁴⁹⁾ 小野信爾는 구국십인단 운동⁵⁰⁾을 아나키즘적 경향을 가진 초보적 공산주의사상의 운동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종래의 전통적 대중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새로운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狹間直樹의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⁵¹⁾

다른 입장은 5·4운동의 지도권에 관하여 지식인·청년·학생과 민족자본가, 그리고 노동자의 연합전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古廐忠夫, 齋藤道彦, 笠原十九司 등의 일본학자들과 朱文叔, Jerome. T. Chen, 주책중 등이 있다. ⁵²⁾

48) 曹 焘, 「중공학계의 5·4운동사 연구에 대한 소고」, 『수선사학회』 4, 1987, p.97.

49) 丸山松行, 김정화 譯, 『5·4운동의 사상사』, 일월서각, 1983, p.17.

50) 구국십인단운동은 5·4운동이 한창이었던 때에 나타난 대중운동의 중요한 조류의 하나로서 10인 마다 1團을 조직하고, 그것을 10團·100團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발전시켜 갔는데, 國貨를 애용한다는 소극적 책임과 저축에 의하여 國民實業總公司를 창설한다는 적극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라고 보고 있다. 조 훈,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충신대논총』 15, 1996, p.126.

51) 조 훈, 위의 논문, pp.216~217.

네 번째, 5·4 운동의 성격에 관해서는 반제·반봉건운동설로 볼 것이냐, 반제·반군벌운동설로 볼 것이냐, 반일·민족운동설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⁵³⁾

5·4 운동의 성격을 반제·반봉건운동설로 보는 입장은 모택동의 주장으로 5·4 운동을 비타협적인 반제·반봉건적 무산계급 세계혁명의 일부분으로 보았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狹間直樹는 모택동의 5·4 운동의 성격을 발전시킨 것으로 삼파투쟁에서 파공이 삼파를 지도하게 이르자 운동은 반일·반안회파의 틀을 넘어서 제국주의 일반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⁵⁴⁾

이와 같은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은 黎澍, 徐宗勉, 朱成甲 등이 제기했다. 黎澍는 모택동의 주장에 비판을 하여 5·4 운동 당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확고한 반대의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지 도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위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徐宗勉·朱成甲도 5·4 운동 당시 반봉건사상혁명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다.⁵⁵⁾

한편 5·4 운동의 기본성격을 반일·반군벌로 보는 입장으로는 野澤豊, 笠原十九司가 있다. 野澤豊은 상해의 삼파투쟁도 반일·반안회파투쟁의 테두리를 결코 넘지 않았다고 보고 狹間直樹와 논쟁을 전개하였다.⁵⁶⁾ 笠原十九司는 산둥의 독일 이권의 중국 반환 및 21개조요구·日中軍事秘密協定の 파기를 요구하는 반일민족운동으로 보고 국내적으로는 반안회파 정권 타도로 보고

52) 조 훈, 「오사운동기 운동주체와 그 형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p.3.

53) 강명희, 위의 논문, p.230.

54) 狹間直樹 著, 양민호 譯, 『5·4운동 연구서설』, 한울, 1985, pp.134~135.

55) 반봉건사상혁명이 주로 지식계와 청년 학생에게 국한되었다는 점, 봉건주의 구경제와 구정치가 아직 지배적이던 정세 하에서 사상적으로 봉건주의의 의식 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회·신국가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무력하고 연약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曹 焘, 「중공학계의 5·4운동사 연구에 대한 소고」, 『수선사학회』 4, 1987, pp.114~115.

56) 조 훈, 위의 논문, p.196.

있다.⁵⁷⁾ 5·4 운동의 기본 성격을 좀 더 정치세력과 상호작용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齋藤道彦이다. 그는 5·4 운동을 反日親美的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철저한 반제국구주의운동이 아니었고 반일민족운동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5·4 운동은 반정부·반군벌의 측면에서 철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⁵⁸⁾ 반제일반으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로 국내에서는 민두기, 강명희⁵⁹⁾가 있다. 민두기는 반제 일반에 대한 공격은 1924년 국민당의 개조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4운동의 단계에서 제국주의로서의 일본에 대한 공격이 행하여졌으나, 반제 일반에 대한 공격은 국민당 개조시가 되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⁰⁾

다섯 번째, 5·4운동과 관련한 인물연구에는 진독수와 호적에 관련된 연구가 많다. 중국학계는 1979년 북경에서 열린 중국신민주주의혁명연구회에서 진독수 등의 역사인물 평가토론회를 거행하였다. 여기서 세 가지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로 역사인물에 대해서는 특정한 역사적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만 되는 점, 두 번째로 ‘實事求是’의 원칙에 견지하여야만 한다는 점, 세 번째로 당시의 역사적 조건하에서 새로운 공헌이 있는지의 有無를 보아야만 한다는 점 등을 정하였다.⁶¹⁾ 이런 입장에 따라서 진독수에 대한 평가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종래에는 그를 정치상의 叛徒로 인식하였다.⁶²⁾ 그를 신문화운동 중의 자산계급 개량주의자로 보고 그에 관해서 부정적인 평가

57) 조 훈,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총신대논총』 15, 1996, p.184.

58) 조 훈, 위의 논문, p.204.

59) 반제 일반으로의 전환의 한 논거로 제시된 공부국(工部局) 태도의 변화는 반드시 운동의 투쟁 대상이 반제 일반에 향해졌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세 명의 친일 고위관료 처벌을 사태의 수습책으로 북경정부의 양보를 구한 것을 반제투쟁에 대응하여 제국주의 세력간의 모순이 해결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명희, 위의 논문, p.230.

60) 閔斗基, 「國民革命論」, 『강좌중국사』 VI, 1989, p.113.

61) 조 훈, 「중공학계의 5·4운동사 연구에 대한 소고」, 『수선사학회』 1987, p.117.

62) 조 훈, 위의 논문, p.116.

를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孫思白, 趙恒烈, 鄧玉山 등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진독수를 신문화운동의 主將으로 보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가 제일 먼저 민주와 과학의 구호를 제창한 점, 孔家店을 타도하는 선봉에 선 점, 문학혁명의 대기를 내건 점 등의 공적 때문에 신문화운동기의 진독수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⁶³⁾

한국연구자들의 진독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李玠奭은 진독수를 5·4운동기 신문화운동의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다.⁶⁴⁾ 배경한은 그의 논문⁶⁵⁾에서 오사기 구습타파의 기수요, 공산당 초기 지도자로서의 진독수를 중국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상원은 진독수에 대하여 그가 차지했던 역사적 비중과 그가 남긴 저작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⁶⁶⁾

다음으로는 호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1950년대 호적의 자유주의적 성향에 대한 전국적인 비판운동이 일어난 후 1990년대 이후 중국 학술회의 부분적 자유화에 힘입어 재평가 작업이 일어났다.⁶⁷⁾ 朱文華는 종래 호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벗어나서 문학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려 했다. 胡典園은 호적이 백화문을 제창하고 신흥자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여 역사의 신조류에 부합한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를 가졌다고 평가하였다.⁶⁸⁾ 한국에서는 민두기 교수가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⁶⁹⁾에서 호적의 자유주의적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중국문명을 근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개조하고자 노력

63) 리쩌허우,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p.194~195.

64) 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第84輯, (1976~1978), p.159.

65) 배경한, 「진독수의 초기사상에 대하여」, 『부산여대 논문집』 14, 1983.

66) 김상원, 「호적의 “근대”수용과 “문학혁명론”」,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34, 2004, p.185.

67) 김상원, 위의 논문, p.183.

68) 曹 焘, 위의 논문, p.117.

69) 민두기 著,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 지식산업사, 1997.

했던 호적의 사상이 오늘날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Ⅲ.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분석

1. 1차~7차 교육과정기 세계사 교과서 5·4운동 분석

(1) 서술 분량 분석

세계사 교과서에서 5·4운동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교과서의 분량에서 5·4운동의 서술의 비중을 살펴보겠다. 또한 5·4운동이 속해 있는 중국 현대사 부분에 대한 비중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현대사 내 5·4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 는 1차 ~7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 분량을 분석한 것이다.⁷⁰⁾

교수요목기 세계사 교과서인 ‘사회생활과(인류문화사)’는 구할 수가 없어서⁷¹⁾ 서술 분량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70) [표 2] 의 5·4운동 서술 분량은 각 교과서마다 한 페이지의 분량이 다름을 전제한다. 이는 중국 현대사 쪽수의 분석에도 해당된다.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하였다. 또한 5·4운동의 범위설정은 신문화운동을 포함하였다.

71) 현재 교수요목기 세계사 교과서는 ‘사이버 교과서 박물관’ 과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목차’는 열람할 수 있지만 교과서 내용은 열람을 할 수 없다. 또한 중앙 국립 도서관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사회생활과(우리 문화사’)만 구할 수 있으므로 서술 분량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표 2]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 분량 비교(단위: 쪽수)

교과서명	교과서 전체 쪽수 (비율)	중국 현대사 쪽수 (비율)	5·4운동 쪽수 (비율)	중국 현대사 내 5·4운동 쪽수 (비율)
1차(조좌호, 1956)	257 (100%)	7.5 (2.9%)	2 (0.7%)	2 (26.6%)
2차(향학사, 1970)	286 (100%)	6.8 (2.3%)	0.8 (0.2%)	0.8 (11.7%)
3차(교학사, 1975)	276 (100%)	9.3 (3.3%)	0.8 (0.3%)	0.8 (8.6%)
3차(한국교육개발원, 1975)	301 (100%)	2.5 (0.8%)	0.8 (0.2%)	0.8 (32%)
4차(교학사, 1984)	276 (100%)	4.5 (1.6%)	1 (0.4%)	1 (22.2%)
4차(보진재, 1984)	278 (100%)	2 (0.7%)	1 (0.3%)	1 (50%)
5차(금성, 1990)	282 (100%)	4.2 (1.4%)	1 (0.3%)	1 (23.8%)
6차(교학사, 1996)	373 (100%)	4.7 (1.2%)	1 (0.2%)	1 (21.2%)
6차(금성, 1996)	342 (100%)	2.6 (0.7%)	0.8 (0.2%)	0.8 (30.7%)
6차(지학사, 1996)	376 (100%)	4.3 (1.1%)	0.8 (0.2%)	1.1 (18.6%)
7차(교학사, 2003)	383 (100%)	3.1 (0.8%)	1.1 (0.3%)	1.1 (35.4%)
7차(지학사, 2003)	351 (100%)	4 (1.1%)	1 (0.2%)	1 (25%)
7차(금성, 2003)	321 (100%)	5 (1.5%)	2 (0.6%)	2 (40%)

5·4운동에 대한 서술 분량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1차 세계사 교과서(0.7%)이다. 그 내용은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서술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정된 7차 교과서에서는 금성출판사(0.6%)의 서술 분량이 가장 높다. 하지만 앞의 교과서에 비해 서술 분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료’의 증가로 인해 서술의 간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의 5·4운동 서술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 외의 교과서에서 5·4운동 서술 분량은 0.2~0.4%로 매우 적다.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 현대사 서술 분량의 변화는 3차 부분 개정 이후(1977)부터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국사 교과서의 독립으로 인해 세계사 교과서의 약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3차 부분 개정 이후 현대사 부분은 0.7~1.5%로 1·2차 교과서에 비해 증가되고 있지 않다. 이는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변천하는 동안, 단 한번도 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때가 없었음⁷²⁾에도 불구하고 세계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대사 내 5·4운동의 비중은 4차 교과서(보진재)에서 5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4운동 이후 중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축약 서술하고 있다. 이는 4차 교육과정시기까지만 해도 국내의 5·4운동 연구가 외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5·4운동을 강조하는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3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8.6%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자의 전공이 동양사는 아니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외의 교과서들은 11.7%~35.4%를 차지하고 있다.

(2) 1차 ~7차 시기의 교육과정 분석과 교과서 서술 분석

72) 최양호, 『역사교육의 현장』, 청년문화사, 1995, p.283.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의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 왔다. 교육과정분석⁷³⁾에 따라 한국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총 7차례의 개편이 있었고 세계사 교육과정도 같이 변화했다. 필자는 이것을 3개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세계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발행되었던 1차~2차 교육과정시기,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세계사 교과서가 1종도서로 분류되었던 3차 교육과정시기부터 검정 합격 중수가 제한되었던 5차 교육과정시기까지,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어 합격 중수의 제한이 없어진 6~7차 교육과정시기까지 세계사 교육과정의 정책상의 변화와 이와 결부된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5·4운동 서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제1차~제2차 교육과정시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분석

한국전쟁 이후인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의 교육과제는 사상적 혼란, 재정 파탄 등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필요성에 따른 반공사상 교육 및 기술교육 등이었다.

교육과정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5·4운동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고, 단지 5·4운동이 속해있는 단원인 「4. 현대의 세계」에서 지도목표로 「(4) 동남아시아의 변천을 이해한다」라고만 언급되어 있다.⁷⁴⁾ 비록 5·4운동에 대한 교육 지침 내용은 없지만 1차 세계사 교과서는 서술 분량이 가장 많고 내용면에서도 배경, 신문화운동, 전개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서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문화운동과 관련하여 ‘미국을 모방한 학제가 생기고, 미국인 듀이의 프라그마티즘 사상이 수입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⁷⁵⁾ 라고 서술하고 있다.

73) [부록 2] -고등학교(일반계) 한국의 교육과정의 편제의 변화

7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55, p.312.

또한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중국에 부인해방운동이 비로소 일어나고’ 라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신문화 운동의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혁명은 학술 방면에도 영향을 끼쳐, 왕국유(王國維), 고힐강(顧頡剛) 중심으로 실증적인 고대사 연구가 일어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⁷⁶⁾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그 뒤로 다루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제 2차 교육과정(1964~1974) 개편의 특징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내재한 정부가 민족 주체성의 확립, 근대화, 반공통일 등의 혁신적인 정책적 전환을 통하여 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 세계사의 가장 큰 변화는 국사와 더불어 필수과목으로 편재되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4·19 혁명 직후 역사교육계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⁷⁷⁾

5·4운동과 관련한 교육과정 지도내용은 단지 「약소민족의 자각과 독립」이라는 소제목만 제시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발전적 계통학습과 ‘필수적인 최소의 내용’을 엄선한 기초학력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⁸⁾

2차 세계사 교과에서 ‘세계사 교육의 강화’라는 교육과정 목표가 반영되어 5·4운동에 대한 내용에서 개선된 점이 보이는데 1차에 교과서에서는 5·4운동을 ‘민족 운동’이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2차 교과서에서는 ‘오사 운동’이라고 명시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처음으로 “3·1운동”에 대해

75) 일조각, 고등학교 사회과 『세계사교과서』, 1956, p.233.

76) 위와 같음.

77) 姜鮮珠,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 97, 2006, p.97.

78) 김한식 외 1인, 「해방 후 세계사 교육과정의 변천과 문제점」, 『역사교육』 61, 1997, p.173.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인 1919년 5월 4일이어서 이를 오·사운동이라고 한다”⁷⁹⁾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2차 교육과정 목표에서 언급되었던 “보편성과 특수성의 동시인식”라는 측면에서⁸⁰⁾ 3·1운동을 서술한 것이었다. 이후 7차 교과서까지 3·1운동의 5·4운동에의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3·1운동과 5·4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⁸¹⁾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3·1운동이 차지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사 과목에서 그 의의를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② 제3차~5차 교육과정시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분석

제 3차 교육과정(1974~1981)은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과 뒤이은 개헌국민투표로 박정희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체화한 교육과정의 개혁을 행한 것이다. 방향 면에서 국적 있는 교육이 강화되는 시기이다.⁸²⁾ 역사과목의 큰 변화는 중·등학교에서 국사가 독립교과가 되었다.⁸³⁾ 반면에 세계사 과목은 ‘사회과’에 그대로 남아 세계사 교육의 ‘위기’ 의식이 크게 부상한다. 그리고 이후 세계사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이후 30년이 넘도록 제기되고 있다.⁸⁴⁾

79) 고병익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향학사, 1970, p.265.

80) 현대사 단원에 한국사와 관련된 서술은 3·1운동 이후 1950년 6·25전쟁 이후 1653년 7월 정전협정 조인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81) 육가평, 「중국 5·4운동에 대한 조선의 3·1운동의 영향」, 『아시아 문화』 제15호, 2000; 정광위, 「‘5·4운동’ 과 ‘3·1운동’을 통한 지식분자 신분의 근대적 전환」, 『유관순 연구』 제1집, 2000; 최기성,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한 연구」, 『전북사학』 제27집, 2004.

8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74.

83) 김한식 외 1인, 위의 논문, p.172.

84) 강선주, 「세계사교육의 ‘위기’와 ‘문제’: 역사적 조망」, 『사회과 교육』 제42권 1호, 2003, p.61.

5·4운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지도내용은 2차와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차와는 달리 대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 진술은 하고 있다.

1977년 학계와 사회로부터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교과서 제도를 개정한다. 이전까지 검정 제도를 유지했던 세계사는 이때부터 1종 도서로 분류된다.

개정 이후 3차 교과서(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국 현대사의 분량이 급격히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4운동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세계사 교과서가 획일화되면서 내용면에서도 ‘반공주의’가 반영되어 풍부한 시각을 담지 못하고 있다.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5·4운동의 영향으로써 1925년 5월 30일에 일어난 ‘5·30운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사에서 5·4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5·30운동⁸⁵⁾에 대해서는 5·4운동만큼 강조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정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는 군사정권아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이전 3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천두슈는 잡지 ‘신청년’을 발간하여 젊은 세대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⁸⁶⁾ 라고 “각주”를 달아 설명을 돕고 있다. 이는 예전 교과서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천두슈’에 대해 발전적인 서술이다. 개정 이후 3차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필진 중에 중국전공자가 외국의 연구 성과를 좀더 정확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4’운동의 불길이라는 삽화가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다.

85) 5·30운동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전면에 내건 본격적인 반제운동의 擡頭을 알리는 것으로 공산당의 주도아래 반제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여, 그 결과 중국공산당의 결성과 중국국민당의 개조로 이어짐에 따라 비로소 중국혁명의 전략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李應達, 「상해 5·30운동과 민족운동의 성격」,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제 16집, 1992, pp.17~18.

86) 최문형,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1975, p.240.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함께 4차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4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통합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세계사 과목의 큰 변화는 세계사가 필수과목으로 환원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업시수의 축소로 세계사 교육의 약화는 여전하였다.⁸⁷⁾

한편, 4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전체교과목표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4운동과 관련한 목표는 2차와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차 교육과정부터는 세계사가 1종에서 2종도서로 풀렸다. 하지만 검정 합격 종수가 5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8종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인지 4차 교과서(교학사)에서 5·4운동에 대한 서술 분량이 2·3차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에서도 개선된 점이 보이는데 「전체 학생 천안문 선언(발췌)」에 대한 사료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4차 교과서(보진재)에서는 ‘21개조’에 대해 각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등장 이후 제 5차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고등학교 세계사가 다시금 공통필수에서 과정별 선택으로 전환되면서 그 결과 교과목의 비중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⁸⁸⁾

5차 교육과정에서 4차부터 주목된 ‘문화권 학습’이 한층 강화되었다. 5·4운동에 대한 주제별 내용이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구체적으로 단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⁸⁹⁾

5차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5·4운동에 대한 서술 분량이 4차와 비교했을 때

87) 양호환 외 1인, 위의 책, p.291.

88) 세계사가 선택교과로 전환된 것은 정치·경제와 한국지리, 국사가 필수로 배정됨에 따라 역사, 지리, 일반사회분야 간의 영역별 안배가 이루어짐에 따른 결과라는 성격이 강하다. 김한식 외 1인, 위의 논문, p.176.

89)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민족적 각성과 민족 운동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중국과 인도의 민족 운동, 투르크, 이란, 아랍,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도록 한다.”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8, p.277.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앞의 교과서와 달리 ‘5·4운동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이 원세개 정부에 제시한 ‘21개조 요구’에 대해 언급이 줄어들고 반면에 ‘백화운동’에 대해 각주를 달아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5차 교과서가 8종으로 확대되고 또한 처음으로 세계사 교과서 집필진에 현직교사가 참여함으로써⁹⁰⁾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5차 교과서에서도 5·4운동(베이징 대학생의 데모)과 관련된 삽화를 신고 있는데 이는 5차 교육과정 목표⁹¹⁾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역사교육에서 삽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90년대 ‘학생운동’이 줄어들어 따라 노태우정권의 보편성 강조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4. 제6차~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분석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6차 교육과정(1992~1997)은 민주화, 정보 사회화, 고도 산업화, 국제화, 통일대비 등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도덕성의 함양과 창의성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정하였다.⁹²⁾ 이 시기에 세계사는 시·도교육청이 선택할 수 있는 5개의 과정별 필수 과목⁹³⁾의 하나로 지정되어 선택 과목으로 변모하였다.⁹⁴⁾

한편 5·4운동과 관련한 교육과정 주제별 내용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

90) [부록 3]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진 참조.

91) ‘세계사에 관한 자료들을 비판·해석 종합해나가는 탐구과정의 훈련을 통하여 폭넓은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9, p.264.

92)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p.71.

93) 6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과정별 필수 과목은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지리(6)로 구성되어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단위수를 표기한 것이다.(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2000.)

94) 선택과목이 되었지만 수업 시수는 종래 4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사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필수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에 민족 운동과 국민 혁명, 독립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게 한다.”⁹⁵⁾라고 명시됨으로써 5차에 비해 ‘국민 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제시되었다.

6차 교과서에서는 앞의 교육과정에 비해 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전체적인 서술 분량은 앞의 교과서들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5·4운동의 서술 분량은 4·5차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이전의 교과서가 군사정권하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에 비해 6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5·4운동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1989년 천안문 사태까지 서술함으로써⁹⁶⁾ 5·4운동 이외의 역사에 대해서도 폭 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6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주목되는 점은 신사상의 한 형태로 ‘여성 해방과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5·4 시기의 사회 운동에 관해 “학생들의 계몽 운동과 공독운동”으로 상인·노동자·농민의 참여의식도 고양되었다.”⁹⁷⁾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공독 운동⁹⁸⁾’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이는 6차 교과서부터 시행된 자유발행 제도로 인해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6차 교과서(지학사)에서는 5·4운동이라는 말을 ‘1919. 5.4’로 표현하고 각주를 달아서 ‘5·4운동은 우리 나라의 3·1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3·1운동’을 강조하

95)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p.302.

96) 4차 교과서(교학사)·5·6차 교과서(금성출판사, 지학사)에서는 1970년대 타이완의 중화민국에 대신하여 국제 연합에 가입(1971)한 시기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외의 나머지 교과서들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97) 민석홍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1996, p.311.

98) 5·4 운동을 전후로 하여 부정부주의 사조의 영향이 있었는데, 무정부주의 영향 하에 지식인·학생층이 노동과 학업을 결합시켜 자기 개조를 추구한 것이 ‘공독 운동’이다. 강명희, 위의 논문, pp.195~196.

98) 이것은 6차 교육과정의 지도목표인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p.310.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표현은 교과서 공동저자의 개인적 관심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삽화와 관련해서는 6차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도 5·4운동과 관련된 삽화가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삽화 밑에 설명을 첨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5차에서 보여졌던 5·4운동(베이징 대학생의 데모)과는 달리 5·4운동에 동참한 여학생들의 참여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5·4운동에서 시작되었던 ‘여성해방운동’을 잘 보여주는 삽화이다.⁹⁹⁾ 또한 6차교과서(교학사)에서는 앞의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신청년」 잡지의 표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삽화는 6차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5·4운동, 신문화운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천두슈가 발간한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시킨 잡지의 표지 사진이다. 이것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온 ‘천두슈’에 대한 최근 학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교과서에서도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1997~)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개정하였다. ‘학습자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세계사 과목의 편제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학년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으로서의 11-12학년으로 나누었다. 세계사의 경우 2·3학년에서 다루는 선택과목이 5개 이던 6차 교육과정에 비해 9과목중 하나로 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5·4운동과 관련한 교육과정 주제별 내용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을 학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⁰⁰⁾ 이는 이전의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달리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강조

100) 7차 교육과정의 가치·태도의 목표로 “여러 나라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함으로써 역사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개방적인 자세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하고 있다.

7차 교과서가 이전의 교과서와 달라진 점은 ‘학습 자료’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주제중심 학습’¹⁰¹⁾에 맞게 중단원 밑에 ‘주제’를 제시하여 그 단원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7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생각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5·4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세계의 각 지역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라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7차 세계사(지학사)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5·4운동은 어떤 성격의 운동이었을까’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지학사)의 집필진이 현직교사들이어서 기존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7차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는 ‘신청년’이 되어 제국주의에 맞서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양사 전공자가 써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5·4운동의 주제로 적합한 것 같다.

7차 교과서에서는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사료’의 제시가 많다.¹⁰²⁾ 7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6차 교과서(교학사)에서 제시되었던 「신청년」 잡지의 삽화 밑에 사료를 제시하면서 “진독수가 「신청년」을 창간하면서 학생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7차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예전의 교과서들에서 한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생들에게 정

고시 제 1997-17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997, p.192.

101)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이해’ 영역)에서는 “문화권과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시대의 성격을 이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위의 책, p.190.

102) 7차 교육과정의 ‘가능’ 영역의 목표에서 진술하고 있는 “역사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 해석하며,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책, p.191.

확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의 교육과정에 비해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7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천두슈의 반유교론」의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천두슈에 대해 최근에는 ‘신문화 운동의 주역’으로 보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천두슈의 반유교론」이 반쪽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료의 증가 차원에서는 변화된 모습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앞서술한 바와 같이 서술의 간략화가 이루어져 개정된 7차 교과서가 오히려 6차 교과서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1차에서 7차까지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서술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개정된 7차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서술의 간략화로 인해 기초적인 사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교과서 집필진의 구성 때문이라고 본다.

‘5·4운동’에 대한 교육목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5·4운동이 속해 있는 중단원에 대한 목표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대사 부분은 주제별 학습으로 인해 서양사와 같이 주제별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목표까지 서양사 중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¹⁰³⁾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의 서술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집필진의 국한성(局限性)과도 연관이 있는데, 세계사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103)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기능·태도를 갖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9, p.5.

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체계와 준거에 의거하여 집필자가 교과서를 집필한 후 규정에 의해 2차에 걸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이다.¹⁰⁴⁾ 하지만 세계사 교과서는 정보에 대한 이해나 시대에 뒤떨어진 입수, 저자의 식견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성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¹⁰⁵⁾

1차~7차까지 교과서 집필자를¹⁰⁶⁾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역사학자 1인에서 4인이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차 교육과정부터는 집필진에 현직교사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집필진이 2인-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진의 전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5·4운동'과 관련하여 현대사를 전공한 집필진은 없다.¹⁰⁷⁾

이와 같은 문제 때문인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에 관한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서술 상에도 많은 문제점과 오류를 초래하는 것이다.

2. 5·4운동의 논쟁점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1) 5·4운동 범위에 대한 분석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세계사 교과서는 5·4운동을 넓은 의미에

104) 김성진, 위의 논문, p.18.

105) 남동현, 「高校 世界史教科書의 魏·晉 南北朝時代 敘述分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p.26.

106) [부록6]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진 참조.

107) 동양사를 전공한 집필진은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항학사, 고병익),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한국교육개발원, 황원구),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보진재, 신채식),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교과서, 오금성) 뿐이다.

서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II장-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15년 9월의 『靑年雜誌』의 창간, 즉 신문화 운동의 개시부터 1921년 중국공산당의 결성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 견해, 두 번째는 1917년 채원배총장이 북경대학을 개혁하여 신문화운동의 근거지를 형성한 때부터 1921년까지를 일컫는 견해, 세 번째는 1915년부터 1923년의 ‘과학과 人生觀論爭’이 끝난 때까지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이것을 교과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4운동의 범위를 1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일조각),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향학사),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보진재),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는 1914년 제 1차 세계 대전부터 5·4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노동자와 상인들도 참가한 민족 운동으로 이어지는 시점까지를 보고 있다.

둘째,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는 5·4운동의 범위를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국공산당이 결성되는 (1921)까지 보고 있다.

셋째,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5·4운동의 범위를 신문화운동을 포함하여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조직(1921)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대륙쪽의 연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학자는 孫思白(1963), 李龍牧(1960), 일본의 연구학자는 笠原十九司(1986), 古廐忠夫(1986) 등이 있다.

넷째,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5·4운동의 범위를 1925년 5월 30일에 일어난 5·30운동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후 노동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1925년의 5·30운동이라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다.”¹⁰⁸⁾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丸山松行의 연구 성

과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丸山松行은 5·4운동이 사상면에서나 幹部면에서나 1921년의 중국 공산당 창립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5·30운동과 북벌 전쟁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¹⁰⁸⁾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신문화 운동부터 국민 혁명까지 나아가, 항일전쟁의 전개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5·4운동의 범위설정에 있어 다른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학습자료’의 증가로 서술의 간략화가 이루어져 ‘중국의 반제국주의’ 라는 단원 하에 항일전쟁까지를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5·4운동의 범위를 신문화 운동의 시작부터 문맥상 제 1차 국·공합작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6차 교과서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과 5·4운동의 관련성 분석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II장-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이 성격이나 목표가 상이한 별개의 운동이라고 파악하는 입장과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관계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양자(兩者)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교과서로는 1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일조각),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8) 최문형, 『세계사』, 교육부, 1975, p.240.

109) 丸山松行, 『五·四運動』, 東京: 紀伊國屋書店, 1969.

1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일조각)에서는 “문학혁명은 학술 방면에도 영향을 끼쳐 왕국유, 고힐강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고대사 연구가 일어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문학 혁명은 차차 학생들과 민중들 사이에 퍼졌다.”¹¹⁰⁾ 라고 서술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2)에서는 “이러한 신문화운동은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각성시켰다.”¹¹¹⁾ 라고 서술하고 있다.¹¹²⁾

신문화운동이 5·4운동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었다고 보는 교과서로는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향학사),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향학사)에서는 “오사운동은 조금 전에 시작되었던 문학혁명과 함께 민중을 각성시키고 신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¹¹³⁾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이 문화운동은 5·4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지식인들은 더 이상 문화운동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학생들의 계몽운동과 공독운동으로 상인·노동자·농민의 참여 의식도 고양되었다”¹¹⁴⁾ 라고 보고 있다.¹¹⁵⁾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는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연관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이 별개라고 보는 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¹¹⁶⁾

110) 조좌호, 『세계사 교과서,』, 일조각, 1956, p.233.

111) 오창훈 외 3인, 『세계사 교과서』, 지학사, 2003, p.299.

112)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학자로는 華崗(1954), 주책중(1959), 민두기(1969)가 있다.

113) 고병익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향학사, 1970, p.265.

114) 민석홍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1996, p.310.

115)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학자로는 강명희(1989)가 있다.

(3) 5·4 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분석

5·4운동의 지도세력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일반적으로 1910년대에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이 등장하였고, 5·4사건이 발생하자 북경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후 여러 계급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경(베이징)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계급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교과서는 1차(일조각), 3차(교학사), 4차(교학사)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일조각)에서는 “북경대학생들이 분개하여”, “노동자와 상인들도 참가하여 일대 민족 운동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은 곧 시민과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어 전국에 파급되었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4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상인·노동자가 이에 가담하고 국민운동으로 발전하여”라고 보고 있다. 4차 교과서(교학사)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국민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국민 혁명’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는(향학사)에서는 주도세력을 “베이징 대학생들은 군벌을 타도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커다란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시위운동은 곧 전국으로 퍼져 학생 뿐 아니라, 상인 및 일반국민도 크게 참여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2차 교과서(향학사)에서는 앞의 교과서와 같은 입장이지만 ‘노동자’의 참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학생, 노동자 등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등장하였고, 5·4사건이 발생하자

116)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학자로는 Jerome. T. Chen(1970), 狹間直樹(1982)가 있다.

북경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계급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교과서는 4차(보진재), 5차, 6차(금성출판사) 교과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보진재)에서는 지도세력을 “지식인, 학생, 상공업자, 노동자 등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 “베이징 대학생이 21개조 요구의 철폐, 군벌 타도, 친일 관리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 나서니 지식인, 노동자, 시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 5·4운동은 반제국주의, 반군벌,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운동으로 그 후 사회와 문화 및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라고 보고 있다.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5·4운동의 지도세력에 관해서 “학생과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베이징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5·4운동은 한국의 3·1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반제국주의·반군벌·반봉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6차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는 “학생과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등장하였다.” “5월 4일 베이징 대학생을 중심으로”, “5·4운동은 한국의 3·1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반제국주의·반군벌·반봉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지도세력을 “학생, 지식인, 상인, 노동자 등의 거국적인 반일, 반정부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누가 주도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노동자와 상인들이 가세하여 전국적인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6차 교과서(교학사), 7차 교과서(교학사), (금성출판사)에서는 5·4운동을 주도한 지도세력을 ‘베이징 대학생’이라고만 보고 있

다. 이것은 5·4사건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계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4) 5·4 운동 성격분석

5·4 운동의 성격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제·반봉건운동설로 볼 것이냐, 반제·반군벌운동설로 볼 것이냐, 반일·민족운동설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일조각)에서는 5·4운동의 성격을 “일본을 배척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일대 시위운동”이라고¹¹⁷⁾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5·4운동의 성격을 반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반제·반봉건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없는 국내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2차 교육과정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5·4운동의 성격을 반제, 반군벌로 보는 교과서로는 2차, 4차, 6차(교학사), 7차(교학사)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을 규탄하고 제국주의를 배척하며 국권회수를 부르짖는 시위운동은 곧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며” 라고 보고 있다. 4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는 “제국주의 반대와 군벌 타도 운동으로 전개”, “5·4운동은 반제국주의, 반군벌,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라고 보고 있다.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이것은 곧 전국적인 반군벌·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1919년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117) 조좌호, 『세계사 교과서』, 일조각, 1975, p.234.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다.

위의 교과서들과 달리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교학사)에서는 5·4운동의 성격을 “반제 항일”로 보고 있다. ‘항일’이란 표현은 어떠한 교과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서술로써 동양사 전공의 저자가 집필하지 못한 결과이다.

5·4운동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으로 보는 교과서는 3차(한국교육개발원), 5차, 7차(지학사) 교과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5·4운동의 성격을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거국적 민족운동”으로 보고 있고,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5·4운동의 성격을 “반제국주의·반군벌·반봉건 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다른 교과서와 달리 5·4운동의 성격을 ‘반봉건’이라고 보고 있다.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5·4운동의 성격을 “군벌 타도, 반일”로 서술하고 있고, 6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지학사)에서는 “반일, 반정부의 시위운동”으로 보고, 이와 같은 서술은 ‘반제’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¹¹⁸⁾

이와 같이 5·4운동의 논쟁점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살펴본 결과 학계의 활발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연구 성과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성과가 반영된 서술도 주로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가 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5·4운동에 대한 연구가 80년대에 시작되어 9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았을 때 7차 교육과정(1997~)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국내 학계의 5·4운동에 대한 연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7차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118) 이와 같은 관점은 일본의 齋藤道彦(1988), 중국의 黎澍(1979), 徐宗勉(1986), 朱成甲(1986), 한국의 민두기(1989), 강명희(1989)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교과서들에 비해 오히려 연구 성과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5·4운동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서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제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 본 결과 5·4운동의 서술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문제점과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8차 교육과정서는 앞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과서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사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8차 세계사 교과서 5·4운동 부분의 서술에 대한 다섯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에 대한 분량 제안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5·4운동에 대한 서술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간략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료’, ‘주제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5·4운동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화 운동’, ‘5·4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인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운동 조직과 활동’, ‘무정부주의’, ‘여성해방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8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5·4운동의 서술 분량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사 과목의 수업시수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별 과목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¹⁹⁾

두 번째로는 세계사 교과서의 본문 서술체제에 대한 제안이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서술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119)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중학교에서는 5·4운동의 전반적인 서술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5·4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통해 학습하고 또한 ‘탐구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5·4운동에 대해 평가해봄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주체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8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금성출판사)에처럼 만화를 도입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5·4운동의 배경', '5·4운동 당시 학생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만화를 도입하거나 '이야기 방식'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²⁰⁾

세 번째로는 '학습 자료'와 관련된 제안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 자료'가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예를 들면, '5·4운동' 서술에서 '산둥 성', '자오저우만(膠州灣, 교주만)'에 대한 위치를 학생들이 인식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8차 교과서에서는 '사료', '그림'과 더불어 '역사부도'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집필진에 대한 제안이다. 8차 교육과정에서는 집필진의 구성으로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 현직 교사의 참여로 집필하는 것이 현재체제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사 연구동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한다. 또한 집필진의 확충, 자문·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의 참여도 요구된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은 세계 각 국가 및 민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내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요청된다.¹²¹⁾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계사 교과서의 종수가 증가하여야 할 것이

120) 예를 들면 5·4운동과 관련된 어휘 중에 '백화 운동', '구어문 제창', '인물 설명', 「신청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2000, p.189.

다. 자유발행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에서처럼 3종으로 제안된 체제는 교과서 서술상의 폭넓은 시각을 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8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종수의 증가로 5·4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서술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일조각, 『고등학교 사회과 『세계사교과서』』, 1956.
- 고병익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향학사, 1970.
- 최문형, 『세계사』, 교육부, 1975.
- 민석홍 외 3인, 『세계사 교과서』, 한국교육개발원, 1979.
- 신채식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보진재, 1984.
- 민석홍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1984.
- 지동식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금성교과서, 1990.
- 민석홍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1996.
- 오금성 외 1인,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1996.
- 허승일 외 2인, 『세계사 교과서』, 지학사, 1996.
- 오창훈 외 3인, 『세계사 교과서』, 지학사, 2003.
- 오금성 외 4인,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2003.
- 김은숙 외 4인, 『세계사 교과서』, 교학사, 2003.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55.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63.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74.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국사과, 1981.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9.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7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

정』,1997.

2. 저 서

- 오상훈, 『중국현대사』, 한길사, 1980.
- 주책중 著, 조병한 譯, 『5·4운동』, 광민사, 1980.
- 조셉 T, 첸 著, 김정화 譯, 『5·4운동의 성격』, 청람, 1983.
- 丸山松行 著, 김정화 譯, 『五·四運動의 思想史』, 일월서각, 1983.
- 閔斗基, 『中國現代史時代區分論』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이원순·이전인, 『역사교육』, 정음출판사, 1985.
- 狹間直樹 著, 양민호 譯, 『五·四運動 연구서설』, 한울, 1985.
- 서진영, 『중국혁명사』, 한울 아카데미, 1992.
- 최양호, 『역사교육의 현장』, 청년문화사, 1995.
- 河世鳳,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5-중국사 근·현대』, 신서원, 1996.
- 曹 焘, 『중국 근·현대사 연구 입문』, 유영사, 1996
- 민두기 著,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 지식산업사, 1997.
- 신승하·임상범·김태승 共著, 『20세기 중국사』, 1998.
- 양호환 외 1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광시앙똥저, 『루쉰, 욕을 하다』, 휴먼필드, 2004.
- 리쩌허우 著, 장성철 譯,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3. 논 문

1) 역사 논문

- 역사학회, 「回顧와 展望」, 『역사학보』, 第39輯, 1967.
- 민두기, 「5·4운동의 역사적 성격」, 『동양사학연구』 4, 1970.

- 조 훈, 「5·4운동의 성격에 대하여(운동주체와 양태를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13, 1978.
- 역사학회, 「回顧와 展望」, 『역사학보』, 第84輯, 1979.
- 조 훈, 「오사운동기 운동주체와 그 형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1.
- 裴京漢, 「陳獨秀의 初期思想에 대하여」, 『釜山女大論文集』 14, 1983.
- 조 훈, 「오사 운동론」, 『海士論文集』 20, 1984.
- 민두기, 「채원배(1868~1940)사상의 구조적 이해」, 『高柄翊先生環甲紀念論叢』, 1984.
- 역사학회, 「回顧와 展望」, 『역사학보』, 第108輯, 1985.
- 이민호, 「세계사교육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역사교육』 40, 역사교육연구회, 1986.
- 조 훈, 「중공학계의 5·4운동사 연구에 대한 소고」, 『수선사학회』 4, 1987.
- 민두기, 「국민혁명론」, 『강좌중국사』 VI, 1989.
- 강명희, 「5·4 運動」, 『강좌중국사』 VI, 1989.
- 조경희, 「신문화운동에 나타난 반유교전통정신(1915~1919)」, 『중국어문연구회』 3, 1990.
- 김동원, 「5·4운동기 무정부주의 사상의 一研究」, 『원광대 대학원 논문집』 10, 1992.
- 김동원, 「5·4운동기의 신문화운동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김정화, 「5·4운동시기 부녀해방사상」, 『五松李公範教授停年退任東洋史論叢』 지식산업사, 1993.
- 박제균, 「무정부주의사상의 중국으로의 전파」, 『경북사학』 16, 1993.
- 박제균, 「오사기 무정부주의자의 이상추구운동: 李石畬의 근검공학운동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50, 1995.
- 박제균, 「『工學』 잡지와 오사시기 무정부주의 사조」, 『중국현대사연구』 1, 1995.
- 김정화, 「5·4운동시기의 工讀思想」, 『阜村論叢』, 1995.

- 조 훈, 「일본에서의 오사운동의 연구현황」, 『총신대논총』 15, 1996.
- 조경희, 「'5·4' 신문화운동과 여성의 발견」, 『중국어문연구회』 12, 1997.
- 김한식 외 1인, 「해방 후 세계사 교육과정의 변천과 문제점」, 『역사교육』 61, 1997.
- 김정화, 「채원배의 이상주의 실천-유범근공검학운동의 교육구국적 측면」, 『충북사학』 10, 1998.
- 임상범, 「진독수의 국민국가론-신문화운동기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8, 1999.
- 임상범, 「'民'에서 '國民'으로: 5·4운동기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현대사연구』 제2집, 1999.
- 윤혜영, 「5·4운동과 '신여성」, 『중국현대사연구』 제7집, 1999.
- 김상원, 「호적의 “근대”수용과 “문학혁명론”」,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34, 2004.
- 林相範, 「근대중국에서의 범죄학 성립과 범죄(형법, 범죄학의 도입과 베이징 주민의 대응)」, 『中國近現代史研究』 第31輯, 2006.
- 姜鮮珠,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 97, 2006.
- 역사학회, 「回顧와 展望」, 『역사학보』, 第167輯, 2006.

2) 교육대학원 논문

- 이석영, 「오사전반기 학생운동의 성격」,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이은영, 「5·4운동기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일고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 남동현, 「高校 世界史教科書の 魏·晉 南北朝時代 敘述分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尹鍾活,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진원숙, 「제5·6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민창기, 「중국 5·4운동의 국내·외적 배경과 민족주의」, 부산: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성원,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정희숙, 「5·4운동기 여성운동의 전개와 의의」,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Abstract

Narration analysis on May Forth Movement in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Eun Jung, Shim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from the first till seventh curriculums about May Forth Movement.

May Forth Movement of the point of departure of chinese contemporary history is ethnic popular movement taking the lead by students, concentrating all level of society, is important meaning in that is point of succeeding political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a mass education drive at developing in regard to the people. but the contents of narration is similar as compared description style is the past textbooks is spite of a lot of changes of curriculums, some parts is simplified in comparison the past textbooks. Especially it is partial change of contents since isn't reflected of new study results of academic world. In addition revision seventh textbooks is increased 'study data' as comparison the past textbooks, but the side of contents isn't delivered to students basic facts by shorten contents.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curriculum problem and construction of textbook authors.

Education objective about 'May Fourth movement' isn't referred once time from the first till seventh curriculums, it is referred the middle unit of goal at May Fourth movement. contemporary history part is indicated topic as European history topical study. As the goal of curriculums isn't content alteration about May Fourth movement. This is related to authors limitation. observing for textbooks author from the first till seventh curriculums, is a great part of historical scholar from one to four described till fifth curriculums. it is appeared the present teacher is participated at this time. After sixth curriculums is constructed from two to five authors. As to mayor of authors isn't contemporary history about May Fourth movement. Construction of the authors is thought properly in current state about historical scholar, historical education scholar, contemporary teacher. But a plan reflecting chinese history study trend should be filled up. And is needed authors' supplement, consult · revision.

eighth curriculums world history textbooks isn't repeated above mentioned problems. Therefore world history textbooks helping substantially the students in the school field rather than theoretical textbooks.

[부 록]

[부록2] -고등학교(일반계) 한국의 교육과정의 편제의 변화

시기구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교수요목	사회생활과	인류문화사 (중학교4학년)	우리문화사 (중학교5학년)		
제1차 교육과정	사회과		국사(105시간)		
			세계사(105시간)		선택
제2차 교육과정	사회과		국사(6)		
			세계사(6)		필수
제3차 교육과정	국사과		국사(6)		
	사회과		세계사(4~6)		선택
제4차 교육과정	국사과		국사(6)		
	사회과		세계사(인문 4단위, 자연계 2단위)		필수
제5차 교육과정	국사과		국사(6)		
	사회과		세계사(4)		선택
제 6차 교육과정	사회과		국사(6)		
			세계사(6)		선택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국사(4)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부록3] -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진

분 류	집필자	출판사	집필자의 현직/전공
1차	조좌호	일조각(1956)	교수/한국사
2차	고 병 익 외 1인	향학사(1970)	고병익: 교수/동양사 길현모: 교수/서양사
3차-1	최문형	교학사(1975)	최문형: 교수/서양사
3차-2	민 석 흥	한국교육개발	민석흥: 교수/서양사

	외 3인	원 (1979)	양병우: 교수/서양사 황원구: 교수/동양사 이용범: 교수/한국사
4차-1	민석홍 외 2인	교학사(1984)	민석홍: 위와 같음 나종일: 교수/서양사 윤세철: 교수/서양사
4차-2	신채식 외 2인	보진재(1984)	신채식: 교수/동양사 양병우: 위와 같음
5차	지동식 외 2인	금성출판사 (1990)	지동식: 교수/서양사 장상철: 교사
6차-1	민석홍 외 1인	교학사(1996)	민석홍: 위와 같음 나종일: 교수/서양사
6차-2	오금성 외 1인	금성출판사 (1996)	오금성: 교수/동양사 유경준: 교수/미국사
6차-3	허승일 외 1인	지학사(1996)	허승일: 교수/서양사 이주영: 교수/서양사
7차-1	김은숙 외 4인	교학사(2003)	김은숙: 교수/일본사 조한욱: 교수/서양사 주명철: 교수/서양사 최준채: 교사 남한호: 교사
7차-2	오창훈 외 3인	지학사(2003)	오창훈: 교사 장종근: 교사 장두호: 교사 박찬석: 교사
7차-3	오금성 외 4인	금성출판사 (2003)	오금성: 위의 같음 유경준: 교수/서양사 임화영: 교사 강문환: 교사 정연: 교사

